



결식아동돕기 이화인 걷기대회

2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이화여대 교내에서 '결식아동돕기 이화인 걷기대회'가 열렸다. 이 행사에는 장 상(앞줄 가운데) 이화여대 총장, 박영숙 한국여성재단이사

장, 신낙균 민주당 최고위원, 영화배우 안성기씨를 비롯해 동문·재학생 등 2,000여명이 참가해 12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교내 2km를 돌며 모금운동을 벌였다. 이날 거두어진 후원금은 서대문구 일대에 거주하는 결식아동 48명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는 데 쓰여진다. /원유헌기자